

#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 비교 고찰

박옥련\* · 박경미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Make-up Culture in Portrait Between Chosun and Ch'ing

Ok Reon Park · Kyoung mee Park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ung Univ

### 1. 서론

본 논문은 중국왕조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를 고찰한 전보에 이어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청대(淸代)와 조선은 예부터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 있으면서 종교, 사상, 학문 등 고유한 문화를 교류해 왔다. 특히 화장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청대의 화장문화는 조선시대의 화장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의 화장형태는 신윤복의 미인도의 인물화에서 기녀들의 분대 화장형태를 알 수 있으며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에서는 일반부녀자의 화장형태를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분대와 비분대의 이원화된 화장문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여성상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청대에는 장엄의 앵앵 조경도에 나타난 인물의 화장형태에서 아래로 처진 눈썹이 병약해 보이며 입술화장은 했으나 붉은색이라기보다 분홍색에 가깝다. 이는 청대의 여성의 나약하고 힘없는 심미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이때 조선시대와 청대의 화장문화는 당시 여성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형태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각국의 여성상에 따른 화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논문의 연구내용은 화장이 얼굴의 각 부위로 세분화 되고 형태도 다양해져 화장문화가 최고조를 이루는 조선시대와 청대의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를 고찰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시대적 배경과 화장문화

##### 2.1.1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문화배경과 남성 우월







적인 사회풍조,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 화장의 경향이 소박해졌다 또 내외사상의 팽배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즉 부덕이 강조되었으며 유학적 도덕관념과 남성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당시의 남성들은 부인들에게 짐झ고 운치있는 용모를 중용하였고 여성들은 그것을 여성미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표면적인 얼굴 화장이 위축되었다. 조선시대에 들면서 이전 시대까지의 다양한 화장법이 정리되고 세련되어졌지만, 내면의 마음이 곧 얼굴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사회구조 속에서 아름다움도 외형미보다 행실미가 더 강조되어 궁녀와 기생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치장이 고려시대에 비하여 훨씬 담백해졌다.

##### 2.1.2. 청대

청대는 만주족이 설립한 왕조로 건립초기에는 한족 진압정책을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한족과 만주족이 혼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청대의 여성은 남존여비사상 등 엄격한 사회의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인물화에도 영향을 미쳐 청대 여성들은 모두 긴 목에 여원 어깨, 버들잎 같은 자태, 긴 얼굴, 가는 눈, 앵두 입술의 용모를 가졌다. 또 청대 인물화에는 병태적인 아름다움 이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축 하였는데 이는 여성미의 기초를 두고 있다.

### 3.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 비교 고찰

<표 1>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형태 비교

시대	인물화	화장형태의 특징	비고
조선시대	윤덕회 독서하는 여인	독서하는 부녀자의 모습으로 눈썹은 아래로 그려졌으며 입술화장은 하지 않았다. 18C 상류 부녀자의 모습으로 다소곳한 모습이다.	
	신윤복 '월하정인'의 인물 중	기녀의 모습으로 눈썹의 형태는 가늘고 길고 위로 올라간 눈과 함께 조선시대 남성의 이상형의 여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인도, 송씨거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9C 상류층 부녀자의 모습으로 분대화장과 입술화장까지 하여 기녀들의 화장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녀들의 분대 화장법이 상류층 부녀자들의 화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대	장엄(張儼) 앵앵조경도 (鸞鸞照鏡圖)	아래로 처진 눈썹이 병약해 보이며 입술 화장은 했으나 붉은 색이라기 보다 분홍색에 가깝다. 이는 청대의 여성의 나약하고 힘없는 심미적 상태를 표현한 것	
	청대 제후상	청대의 여성 화장의 특징 중 입술화장 방식을 보면, 연지를 이용하여 윗입술은 전부 바르고 아랫입술은 중간 부분만 발랐다. 북경의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제후의 그림에서 후비(后妃)는 위·아래 입술의 중간에 한 방울씩 그리는 입술화장을 했으며 이는 곧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다 하겠다.	
	윤정비행악도병 (胤禎妃行樂圖屏)	눈썹은 섬세하고 완곡한 느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입술화장은 윗입술은 극히 얇고, 아래 입술은 요염하고 작은 원형에 가깝게 그리고 연지를 발랐다.	

#### 4. 결론

조선시대와 중국 청대의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를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기녀들의 분대화장과 일반부녀자들의 비분대 화장으로 이원화되었고, 남자들이 예찬한 미인상은 신윤복의 미인상으로 주로 아름답다고 소문난 명기(名妓)의 생김새와 화장형태를 조합시킨 모습이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남성들의 이상적인 미인상과 이상적인 여인상은 달랐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인들의 화장은 진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부드럽고 세련되었다.

청대 여성들은 모두 긴 목에 여윈 어깨, 버들잎 같은 자태, 긴 얼굴, 가는 눈, 앵두 입술의 용모를 가졌다. 또 청대 인물화에는 형식상의 병태적인 아름다움 이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축 하였는데 이는 여성미의 기초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는 각국의 대표적인 여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건강한 여성미의 화장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청대의 시대상을 병태적인 여성의 화장형태가 나타났다. 이상으로 조선시대와 청대의 화장문화는 각국의 시대상은 물론 여성미까지 반영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김서주·박옥련(1999), 唐大 化粧文化에 관한 고찰, **경성대 학교논문집, 제20호 2권**.  
 문광희역(1995), 동양복식사 논고, 중세편, 서울;경춘사.  
 박보영, 황춘섭(1998), 韓國 · 中國 · 日本 女性の 色調化粧文化, **복식 39호**, p. 222.  
 李京宣(2003), 연지(胭脂)화장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한국과 중국 여성의 化粧文化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경자 역(1995), 중국복식5000년, 서울;경춘사.  
 趙孝順(1992),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